

대통합·미래지향적 프로그램 개발 절실

5·18 34주년 뭍 남겼다
행사위·보훈처 소통 부족
해마다 '반쪽행사' 되풀이

5·18 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행사가 5·18 기념식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5·18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 주도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오월 정신이 충분히 녹아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축제의 성격이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국가보훈처 주도의 5·18 기념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인해 5월 단체와 소통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국론분열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내년 제35주년 기념행사엔 국민 대통합을 위한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 해결과 함께 행사위의 미래지향적인 축제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사위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광주·전남, 서울 등 전국에서 정신계승, 문화·예술, 학술·교육 등 10개 부문·50개 마을별 행사를 진행했다. 5·18 교육인 '우리 동네 5·18 어린이 교육', '내 손으로 만드는 5·18 민주화향', '주민과 하나되는 5·18 행진'은 세대 공감 및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 또 오월 정신인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주먹밥 만들기' 및 '나눔행사'와 '현열의 행사'를 열어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도 노력했다.

특히 '윤상원 열사를 만나러 가는 5·18 광산길 도보순례', '5·18 민주화기념일 알다' 등과 같은 5·18 역사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은 멀어지던 80년 5월을 5월 정신 속에 담아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시·도민 애도 분위기를 감안, 축제성으로 계획됐던 전야제 등 상당수 야외행사를 취소하면서도 마을별 행사진행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목념을 했다는 점도 전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상무대 영창체험과 도보 순례단, 주먹밥 나누기 등 해마다 되풀이되거나 중복되는 행사는 아쉬운 대목이다. 매년 행사 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한 뒤 시·국 현안과 연계 행사를 이끌어갔으나 올해 행사에는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반적으로 시민 참가도 전년에 비해 상당수 줄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독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서는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를 놓고 5월 단체와 소통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다. 더구나 보훈처가 5월 단체회원들이 빠진 빈 자리를 인력 동원으로 메우고 충분한 준비없이 기념공연 참여자를 섭외한 점 등 관계 기념식은 내년부터 반드시 되풀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5·18, 세월호 희생자 추모 미사 19일 광주시 동구 남동 5·18기념성당에서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미사가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가족 "해경 해체로 구조·수색업무 차질 안돼"

국민들 "필요한 조치,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

박대통령 발언에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침몰 및 구조·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해양경찰청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키로 하면서 향후 수색·구조 작업 진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상당수 국민은 해경의 부실한 대처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컸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해경 해체 결정으로 수색·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당장, 세월호 사건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구조 업무에 어떠한 동요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종자가족들은 진도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1명까지 모든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가장 중

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족들은 "담화로 말미암아 해경은 크게 동요하고 수색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마지막 1명까지 구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가족들은 "현장의 구조 업무에 어떠한 동요도 있어서는 안되며 잠수부들이 구조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 주기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족들은 "마지막 1명까지 모두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희생자, 생존자, 국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실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실종자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팽목항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도 이날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약속드린 대로 마지막 실종자를 찾는 순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양경찰은 종전과 다름없이 수색·구조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5 몰림 00:26
 해질 19:33 달림 10:46

'광주전남 비'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	16/22	보성	비	14/20
목포	비	16/21	순천	비	15/22
여수	비	16/19	영광	비	16/22
나주	비	16/22	진도	비	16/19
완도	비	16/19	전주	비	15/22
구례	비	15/22	군산	비	14/21
강진	비	16/19	남원	비	15/21
해남	비	16/19	홍산도	비	15/19
장성	비	15/2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남동~동	0.5	북~북동	0.5
남해 서부	남동~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남동~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남동~동	1.5~2.5	북~북동	1.5~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18	11:26	18:28	23:34
여수	00:51	07:05	13:08	19:05

◇주간 날씨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	☀	☀	☀	☁	☁	☀
14/29	13/29	14/29	14/29	17/23	18/23	16/26

◇생활지수

식중독	70
운동	40
빨래	70

광주지방변호사회, 유가족 법률지원단 구성

변호사 30여명 참여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공익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국중돈(55·연수원 17기) 변호사를 단장으로 30여명의 자원변호사로 구성됐다. 법률지원단은 대한변협과 연계해 피

해자와 가족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하며 상황에 따라 현장대응과 법제연구 등의 역할도 맡게 된다. 광주변호사회는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해 유가족이 재판절차에 참여해 진술할 권리와 재판결과·형 집행 결과 등 행사 절차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는데 법률 지원도 할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재판부 증원...판사 4명으로 늘여

광주지법 장재용 판사 합류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선원들 담당 재판부가 판사를 추가로 증원했다. 광주지법은 19일 민사 8단독 장재용(연수원 34기) 판사를 형사 11부에 배치했다. 기존 형사 11부 재판부인 임정엽(28기) 부장판사, 권노을(39기)·임상은(40기) 배석판사 외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기소된 15명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방대한 자료 조사 및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의 충분한 검토·분석 등을 위한 조치

다. 재판부는 최근 피고인 15명 가운데 13명에 대해 6명의 국선 전담 변호인을 지정하는 한편, 첫 재판 날짜를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지법은 형사 11부가 세월호 사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건을 추가로 배당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기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넘기는 등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Eco Dome House

에코돔하우스

웰빙시대와 친환경 건축자재의 선택!

에코돔하우스는 세계 유일의 레고 조립형(특허) 초경량 단열보드를 이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시공 가능하며 당사에서 생산하는 특허제품 이지골드코트의 성능을 고스란히 등에 접목시킨 **기능성 친환경 돔하우스**입니다.

에코돔하우스 기능성
불연 / 결로방지 / 원적외선 방출 / 음이온 발생 / 탈취 기능 / 항곰팡이 기능 / 항균 기능 / 복사열 방지 / 친환경 건축자재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41-634-9909 / T. 010-7514-3266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62-513-1400 / F. 062-513-1404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880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정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결혼정보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서울대학교홍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 초혼		♀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법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법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기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